

第14回
(閉會中)

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請願審査特別委員會會議錄

第 1 號

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

日 時：1992年5月11日(月)

場 所：小會議室

議事日程

1. 城北區東小門洞商街아파트宿願解決에대한請願審査

審査된案件

1. 城北區東小門洞商街아파트宿願解決에대한請願審査 1面

(14時54分 開議)

1. 城北區東小門洞商街아파트宿願解決에대한請願審査

○委員長 韓春子 그러면 지금부터 請願審査特別委員會 開議를 宣布하겠습니다.

그러면 그간에 委員님들도 研究를 더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가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再論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또 可及의이면 區廳에서도 그리고 市에서도 그리고 法쪽에서도 그리고 이것은 請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. 하지만 우리 請願審査特別委員會가 생기다 보니까 진지하게 여러 議員님들의 그 높은 高見을 듣고자 이렇게 請願審査에 그것을 받아 들인 것 같습니다.

그러기 때문에 議員님들 좋으신 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終結을 짓는 이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請願을 이첩한다고 한다면 管轄廳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.

그리고 法的 繫留중 이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결정을 내리기에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妥當하고 合理的한가를 여러 議員님들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

말씀 한번 해 보시죠.

○安敦洙委員 그동안 여러 議員님들이 같은 장소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.

또 우리가 여러번 會議를 하는 과정에서

區廳에서나 住民들 간에 약간의 합의점을 조금 찾은 것 같습니다.

원칙대로 모든 것을 解決해 드리지 못했지만 다소 便利를 봐줄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.

그것으로서 우리 委員會에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만한 일을, 役割을 했다는 점으로 끝을 맺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.

○委員長 韓春子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우리 安敦洙委員님 말씀에 아마 여기 계신 여러 議員님들도 다 동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.

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되게끔 하는데 3가지 案件 중에 2가지가 해결이 났다고 하면 큰 수확을 얻었다. 그래서 그 住民들에게 들려오는 말을 들어보면 기왕이라면 한가지도 마저 됐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은 住民들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

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請願審査에서 어느정도 성의를 보여서 그만큼 해결을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 安委員님 말씀은 그대로 여기서 이 상태에서 終結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意思시고요 다른 委員님들의 意思는 어떠신지요?

○吳宗泳委員 吳宗泳委員입니다. 우리 安敦洙委員님의 動議에 再請합니다.

○委員長 韓春子 지금 吳宗泳委員님께서 安敦洙委員님의 말씀에 同意 再請을 하셨습니다.

또다른 委員님들 意見은 어떠신지요.

○崔桂洛委員 再請입니다.

○委員長 韓春子 崔桂洛委員님의 再請이 다시 있었습시다.

그러면 다른意見이 또 있으십니까?

(「없습시다」하는 이 있음)

그러면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우리 이번 이 請願은 오늘로서 이제 終結을 짓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겠습시다.

그러면 現在 우리가 3가지 案件중에 2가지 案件에 대해서는 區廳에서 해서 地域住民에게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지난번에 다 말씀울 드렸기 때문에 이 案件은 여기에서 終結을 내리는 것으로 하고 이 請願審査委員會는 오늘 이것으로 終結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시다.

여러분 異議는 없으시죠?

(「없습시다」하는 이 있음)

네, 감사합니다. 이상 請願審査特別委員會 閉會를 宣布합니다.

(14時57分 閉會)

○出席委員名單

金 吉 泰	蘇 正 煥	安 傑 珞
安 敦 洙	吳 宋 泳	李 鍊 垞
崔 桂 洛	韓 春 子	洪 清 一